

2027학년도 문학 만담: 수능특강 연계 기출-고전시가 (평가원편)

#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저작권은 평가원에게 있습니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 공통 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 1~12쪽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13~16쪽
    - 언어와 매체 ..... 17~20쪽

※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제 1 교시

# 국어 영역

홀수형

목차

[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01] 2007학년도 6월: 2P
- [02] 2007학년도 9월: 4P
- [03] 2010학년도 수능: 6P
- [04] 2021학년도 9월: 8P
- [05] 2022학년도 9월: 10P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06]

(가)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 금차(玉人金釵)\* 비겼으니  
이삼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잡아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 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동각에 숨은 꽃이 척축(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 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 안민영, 「매화사」 -

\* 옥인 금차: 미인의 금비녀.

\* 척축: 철쭉.

\* 백설 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음력 정월.

(나)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이는 산람(山嵐)\*이라  
천암(千巖) 만학(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질으락  
사양(斜陽)과 섞어지어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구나  
남여(藍輿)를 재촉해 타고 술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  
는 적에

㉡ 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鶯)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綠陰)이 엉킨 적에

㉢ 백적(白積) 난간에 긴 조으름 내어 펴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 된서리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쳐진고

㉤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물커늘

조물이 헌사하여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 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에  
벌었어라

㉦ 건곤도 풍성할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 송순, 「면양정가」 -

\* 산람: 산 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 경궁요대: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樓臺).

\* 옥해 은산: 눈 덮인 들판과 산.

(다)

아아! 덕보(德保)\*는 만사에 통달하고 명민하며, 겸손하고 고  
야하며, 식견이 심원하고 아는 것이 정밀하였다. 특히, 율력(律  
曆)에 정통하여 그가 만든 혼천의(渾天儀) 등 여러 기구들은

깊이 생각하고 오래 연구하여 지혜를 발휘하여 제작한 것들이  
다. 애초 서양인은 땅이 둥글다는 것만 말하고 회전한다는 것  
은 말하지 않았다. 덕보는 일찍이 지구가 한 번 돌면 하루가  
된다고 논했는데 그 이론이 미묘하고 심오하였다. 이에 관한  
책을 미처 쓰지는 못했지만, 만년에 이르러 지구가 회전한다는  
사실을 더욱 자신하였다.

덕보를 흠모하는 사람들조차도 ㉧ 그가 일찍부터 과거를 단  
념한 채 명리(名利)를 생각지 않고 조용히 집에 들어앉아 좋은  
향을 피우거나 거문고를 타며 지내는 것을 보고는 ‘덕보가 담  
박하게 자중 자애하면서 세속을 벗어나 마음을 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가 백사(百事)를 두루 잘 다스  
리고, 문란하고 그릇된 일을 척결하며, 나라의 재정을 맡거나  
외국에 사신으로 갈 만하며, 군대를 통솔하여 나라를 방어하는  
데 뛰어난 책략을 지녔다는 것을 통 알지 못했다. 하지만 덕보  
는 자신의 재주가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한두 고을의 수령을 지낼 때에도 그저 관아의 장부를 잘 정리  
하고, 일을 미리미리 처리하며, 아전들을 공손하게 만들고, 백  
성들을 잘 따르게 함이 고작이었다.

덕보는 서장관(書狀官)인 숙부를 수행하여 북경에 갔을 때, 유  
리창\*에서 육비, 엄성, 반정균을 만났다. 이 세 사람은 모두 고  
향이 전당(錢塘)으로 문장과 예술에 능한 선비들이었고, 사귀는  
이들도 중국의 저명한 인사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덕보를  
큰선비로 떠받들며 그에게 심복(心服)하였다. 덕보는 그들과 수  
만 글자의 필담을 나눴는데, 그 내용은 경전의 취지, 사람에게  
천명이 부여된 이치, 고금의 인물들이 살아간 도리 등에 관한  
것이였다. 그의 견해는 웅대하고 결출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  
였다.

마침내 헤어지게 되었을 때, 서로 마주 보고 눈물을 흘리면  
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한번 헤어지고 나면 천고에 다시 만나지 못할 테지요.  
지하에서 만날 그날까지 부끄러운 일이나 없도록 합시다.”

- 박지원, 「홍덕보 묘지명(洪德保墓誌銘)」 -

\* 덕보: 홍대용(洪大容)의 자(字).

\* 유리창: 중국 북경의 거리 이름.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자연 친화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③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사물에 의탁하여 삶에서 얻은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2. (가)의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발옹’은 매화를 완상하는 주체이다.
- ② ‘황혼월’은 매화의 비유적 표현이다.
- ③ ‘아치 고절’은 매화에 부여된 관념적 속성이다.
- ④ ‘두견화’는 매화와 대조되는 존재이다.
- ⑤ ‘눈’은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3. 옛 노래를 알리기 위해 (가)와 (나)를 소재로 영상물을 만들려고 한다.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조출한 술상을, (나)는 가마와 피리를 소품으로 준비해야겠어요.
- ② (가)는 구슬프게, (나)는 은은하게 느껴지는 배경 음악을 사용해야겠어요.
- ③ (가)는 늦겨울이나 초봄을, (나)는 사계절을 계절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 ④ (가)는 밤을 위주로, (나)는 낮부터 밤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 ⑤ (가)는 한옥의 뜰을, (나)는 주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6.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덕보'가 취한 평소의 생활 자세를 그리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비교하여 '덕보'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감탄적인 어조로써 '덕보'에 대한 감회를 표출하고 있다.
- ④ '덕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바뀐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예를 들어서 '덕보'의 인물됨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 ② ㉡: 화자의 한가로운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풍경의 변화를 통해 적막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 시·청각적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 ⑤ ㉣: 화자의 감회가 집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5. (가)의 ㉠와 (다)의 ㉡의 거문고 연주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와 ㉡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는 자신을 위해, ㉡는 타인을 위해 연주하고 있다.
- ④ ㉠는 풍류를 즐기기 위한, ㉡는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⑤ ㉠는 주변 사람과 어울리기 위한, ㉡는 재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09]

(가)

향단(香丹)아 ㉠ 그넷줄을 밀어라  
머연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A]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올리나  
㉠ 날으는 새여  
뭉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밀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뭉뚱어리 뭉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B]

㉡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올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뭉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다)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 띠집 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 어리고 하얗\*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릴\* 줄이 있으랴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뵈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뚫더랴\*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랴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들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갓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랴

- 윤선도, 「만흥(漫興)」 -

- \* 하얗: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 부릴: 부러워할.
- \* 삼공: 삼 정승.
- \* 만승: 천자(天子).
- \* 소부 허유: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 약뚫더랴: 약았더랴.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 [B]를 <보기>와 같이 해석할 때, [B]의 화자가 [A]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화자는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삶이 존엄하고, 생명이 남아 있는 한 고통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 ① 꿈을 잃었다고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② 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 ③ 당신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④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이 좇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 ⑤ 당신이 꿈을 이루더라도 삶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3. <보기>를 참고할 때, ㉠~㉥ 중에서 (다)의 ‘띠집’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1점]

<보 기>  
윤선도는 ‘띠집’을 짓고 나서 문집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집이 나로 하여금 표연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신선이 되어 날아가는 뜻을 지니게 하면서도, 끝내는 나로 하여금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의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은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 ② ㉡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5. (가)의 시적 상황을 <보기>의 ‘꿈’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레라. 이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야! 주렴 견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보지.”

- ①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미천한 신분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재회를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6. (나)를 영상화한다고 할 때, 각 연을 영상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화자와 ‘새’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 ‘구름’, ‘산’이 있는 원경(遠景)을 포착한다.
- ② 2연: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1연에 비해 화면을 어둡게 한다.
- ③ 3연: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를 클로즈업하면서 효과음을 삽입한다.
- ④ 4연: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화면을 점차 밝게 한다.
- ⑤ 5연: 자유를 향한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 ‘새’와 ‘구름’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7. <보기>는 (다)의 창작 배경인 금쇄동을 답사하고 쓴 글이다. <보기>와 관련지어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금쇄동 일대는 해남 윤씨 고택(古宅)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어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다가 최근에서야 흔적이 발견된 곳이다. 윤선도가 여기 은거하기 시작한 때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그는 가문의 일마저 아들에게 맡기고 산속에서 십여 년간 혼자 지냈다. 살 집은 물론 정자와 정원까지 조성해 놓고 날마다 거닐며 놀았다고 한다.

- ① ‘산수간’은 관념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공간일 수도 있겠군.
- ② ‘바위 끝 물가’는 정원의 바위와 연못을 가리킬 수도 있겠군.
- ③ ‘그 남은 여남은 일’은 금쇄동에서 산수를 즐기는 일을 가리킬 수 있겠군.
- ④ ‘먼 뵈’는 윤선도가 유배 체험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었겠군.
- ⑤ ‘다툼 이 없는 강산’은 정쟁이 벌어지는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수능]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삐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뜰\*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삐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삐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삐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A]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삐꾸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삐꾸새」 -

\* 길뜰: 길이 덜 든.

\* 세석: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다)

무등산 한 활개 피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 **높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랴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회지 마나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김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앞으락 내리락 모이락 홀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느느노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되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굶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샤

- 송순, 「면양정가」 -

\* 무변대야: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모래톱.

\* 노화: 갈대.

[B]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 ④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 ④ 6연의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3. (가)의 ‘서러워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나)의 설움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 ③ (가)와 (나)의 설움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 ④ (가)와 (나)의 설움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 ⑤ (가)는 밤을 지새우는 ‘귀뚜리’의 소리를 통해, (나)는 ‘철쭉꽃’의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 ② 2연의 ‘실제의 뼈꼭새’는 ‘여러 마리의 뼈꼭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 ③ 2연~4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 ④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 ⑤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 ②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6.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송순이 「면앙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앙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앙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 ①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 ② ㉡의 ‘늪은 용’이 ‘선잠을 갖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 ③ ㉢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앙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 ⑤ ㉤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잇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9월]

(가)

㉠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늑들은 온는다 혼다마는

㉡ 어리고 하얗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혼노라 <제1수>

보리밥 풋는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 곳 몹ㄹ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피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말슴도 우웁도 아녀도 몰내 도하흐노라 <제3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흐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뎡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샤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혼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회라 흐시도다 <제5수>

강산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언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프리 갑고쟈 흐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이덕무, 「우언(迂言)」 -

1.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2.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늑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늑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② '바회 곳 몹ㄹ'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너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④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3.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 ②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5. ㉠을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09]

(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A]

(중략)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셋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울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혜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셋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댕소리 셋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꿇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B]

- 허난설헌, 「규원가」 -

\* 다시: 시기가 많음.

\* 면목가증: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들흔덕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옹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쭈 하나니

[C]

- 작자 미상 -

-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 ㉠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 (가)에서 ‘실술이 상에 울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들’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 (나)의 ‘후루룩 비쭈’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 확인 사항

- 문학 만담: 수특 연계 기출 - 고전시가 (평가원편)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 이어서, 「빠른 정답」이 제시되오니, 채점 후에 해설을 참고해 주세요.

〈문학 만담: 수특 연계 기출 - 고전시가 평가원편〉				
매화사 / 면양정가 / 흥덕보 묘지명				
1.②	2.②	3.②	4.③	5.④
6.④				
추천사 / 새 / 만흥				
1.①	2.④	3.①	4.③	5.⑤
6.④	7.③			
승무 / 지리산 뼈꼭새 / 면양정가				
1.③	2.②	3.⑤	4.②	5.①
6.②				
비평 / 만흥 / 우언				
1.①	2.③	3.①	4.⑤	5.④
규원가 /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1.④	2.②	3.②		